

# 김상조 등판에 일부 중견기업 '초긴장'

### '편법 승계·내부거래 의혹' 하림·'하도급 업체 불공정거래' MCM성주 '첫 타깃' 가능성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전격 등판함에 따라 대기업들은 물론 '일감 몰아주기'와 '하청기업 불공정 행위'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일부 중견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1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취임 전부터 '공정한 시장경제'를 강조해온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것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제를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중소기업 사익편취 금지 규제는 자산기준 5조원 이상 기업집단만이 대상이어서 중견기업이 빠지는 문제가 있

다"며 "향후 국회와 상의해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하림그룹, MCM성주 등이 '김상조號 공정위'의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으로 발돋움한 하림은 편법 승계 문제로, MCM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성주그룹은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하림의 경우 편법승계와 내부거래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김홍국(60) 회장의 장남 김준영(25)씨가 현재 자산 규모 10조원에 달하는 하림그룹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증여세만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뉴시스와 가진 전

화통화에서 "하림의 지분 승계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승계 지원부분·사익 편취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MCM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성주그룹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성주의 하도급업체들은 성주디앤디가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단가를 적용하고 부당 반품을 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연쇄 부도를 맞았으며 성주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업체들에 따르면 성주는 하도급업체에 샘플 제작비와 운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 성주디앤디는 하도급 거래 계약 체결 당시 마진 지불 방식을 '정률제'

로 했으나 2005년 10월 '정액제'로 바꿨다. 이로 인해 원가와 제품 가격이 오르고 공정이 어려워졌지만 공급업체들이 받은 이윤은 10년 넘게 제자리였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을 반환할 경우 공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성주디앤디측이 하도급 업체에 백화점 판매 정가의 1.1배로 이를 떠넘겼다는 것이 하도급업체들의 주장이다. 실제 성주의 하도급업체 4곳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부도처리됐다.

이 외에 최근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단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일부 차진 프랜차이즈와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역시 김 위원장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뉴시스

### 국민의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워크숍 개최

국민의당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국회고성연수원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선기간 어려운 상황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한 지역위원장을 위로하는 동시에 끈끈한 단결의장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엔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김태일 교수의 '국민의당을 혁신하라'의 특강과, 이연주 수석부대표의 '나는 왜 국민의당을 선택했는가'라는 강사가 이어졌다.

이어서 참석자들의 '당의 혁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열린 토론도 진행됐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체인지메이커가 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혁신으로 국민의 지지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에는 김광수 도당위원장과 정진숙 사무처장 및 중앙당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성 기자

### 국정위 "고위공직자 인사기준, '5대 원칙'만 포함"

문재인 정부의 인사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5대 원칙만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5대 원칙 외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이 추가됐다고 보도했지만 국정기획위는 이를 반박했다.

박광은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공약인 5가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이외엔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음주운전이나 성폭력뿐 아니라" 얼마든지 (5대 원칙보다) 나쁜 일이 많다"며 "(하지만) 공약으로 제시한 5가지 사안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명확하게 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5대 원칙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해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말까지 인사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국정기획위가 활동을 끝내면 해당 기록물을 모두 청와대 기록관으로 보낼 것"이라며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대통령 기록물로서 지정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 김영춘 "스텔라레이저호 수색에 선박 2척 추가 투입 검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스텔라레이저호 실종선원에 대해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영춘 후보자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색 선박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농해수위 이계호 위원장이 "현재 선박 1대가 수색을 하고 있는데 조기에 수색을 위해서는 수색 선박이 3척이 필요하다"면서 "2척이 더 필요한 사항인데 추가 투입할 수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해수부 예산이 될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관계부처와 협조해 조치를 요청하고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스텔라레이저호는 지난 3월 31일 남미 우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사고 이후 구조된 선원 2명(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22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은 실종된 상태다.

앞서, 김 후보자는 부활한 해양경찰청이 해양 수권을 지키고 불법 조업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해양의 주요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민을 비롯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양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 도종환 "朴 국정농단,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며 "진상조사위 구성 때 관련단체 예술인,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참여하게 할 것이다. 철저하게 파헤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가 통합한 정부 상징체계와 관련해 "짚은 교체는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농단 부역자와 공모자가 잔존해 있다.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며 "진상조사위 구성 때 관련단체 예술인,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참여하게 할 것이다. 철저하게 파헤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가 통합한 정부 상징체계와 관련해 "짚은 교체는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4일 현행 중앙과 지방간 8대 2 수준의 세수구조를 개선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여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건비 조차 줄 수 없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

### 김부겸 "지방 재정자립도 높일 것" 8대2 세수구조 개선

지방간 세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약속한 바 있는 세입구조 8대2, 세출 4대6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약속했다"면서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떤

정도로 세수를 이양해서 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 불균형 조정 문제가 남았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세수가 이양돼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민주당 신성장특위, '4차산업혁명 신성장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별위원회가 14일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동력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장우 신성장특위 간사(경북대 교수)와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의 발제와 종합·지정토론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장우 간사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국가 신성장 정책: 전략과 추진과제' 발제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포용적 신성장 정책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신성장위원회를 설치해 전략 통합과 정책 조정 위한 추진기획단(사무국)을 두고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일자리 무덤이 아닌 신성장동력 발굴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 신성장위원회 주요 과제로 ▲신성장 생태계 구축 및 핵심 플레이어 육성 ▲신성장 산업 육성 ▲R&D(연구개발)시스템 혁신 ▲청의용인재 양성 ▲사회 혁신 및 소통 ▲총괄 프로젝트 운영관리를 제안했다. /뉴시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권타복도!

#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2017 MUJU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으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on

WTF

Jeonbuk Bank Kwangju Bank JB Woori Capital ARANA AIRLINES